



말로써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속의 진의를 알아야

(지난 호에 이어서)

질문자(3남): 큰스님,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. 생각과 공덕, 비밀 정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.

큰스님: 생각의 비밀?

질문자(3남): 생각과 공덕, 비밀 정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.

큰스님: 비밀 정도라... 그건 공덕이 되는 것도 돌로 보지 않는 거. 일체 모습이 내 모습과 들어 아니고 일체 차원을 논하지 말고, 예를 들어서 5차원이라면 아주 어리석은 1차원 2차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 닥쳤으면 내가 어리석어 주고, 똑똑한 사람이 앞에 닥치면 내가 똑똑해지고,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돼 주란 애깁니다. 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가 공덕입니다. 공덕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. 정도의 비밀도 그 마음이 그래서, 모든 육체 안에 있는 의식들이 보살로 화해서 즉, '법가지' 또는 '보현가지' 또는 '지비가지' 이 가지 가지가 전부 보살로 화해서 그 응신이 돼 준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 정도죠. 이 모두가 남의 눈에 띄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가 할 일 꾸준히 그냥 진실로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밀 정도를 알고 있다 이런 겁니다. 어때요?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?

질문자(3남): 좋습니다.

큰스님: 허허허허.

질문자(3남): 부처와 도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죠.

큰스님: 부처라는 것도 이 세상이 들어 안인 까닭에 부처입니다. 예를 들어서 맥의 몸통이 속에 있는 그 의식들 생명들이 있는데 맥이 봤다고 해서 혼자 본 겁니까, 들었다고 해서 혼자 들은 겁니까, 움직거렸다고 그래서 혼자 움직 거린 겁니까? 전체가 다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움직거린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. 모두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겁니다. 그렇죠? 이해가 겁니까 안 겁니까? 나 혼자라도 혼자 나 가아니거든요.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한 덩어리의 개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이었습니다.

그러니까 물 먹었을 때 어떤 게 물을 먹었을까? 더불어 같이 먹었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떤

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한 겁니까? 더불어 같이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건 영, 공해서 잘나잘나 나투면서 화해서 응해 주는 그 마음이 부처인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며, 어떤 거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으며 뭐든지, 내가 봤다 내가 했다, 내가 간다 내가 봤다, 내가 들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부처인 까닭에 도는 거기에서, 부처가 그냥 생활하고 그냥 가는 게 전부도 되지 도 아닌 게 없죠, 또,

그러니까 그러한 부처님의 생각 자체가 바로 도입니다. 도의 근원이 되고 그 근원에서 일거

수일투족 그 공범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'도'라고 하죠.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기에다가, 알더라도 거기다 그냥 다 말기세요. 말기하면서 그 속의 진의를 알게끔 스스로 자꾸 만들어 나가세요.

질문자(4남): 아까 누군가 살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듣고 큰스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전에 한번 제가 살생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던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.

지난 8월달에,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휴

가 받아서 진주에 내려갔습니다. 집이 진주니까, 내려갔는데 진주지원에서 사나흘을 왔다 갔다 다니다가 휴가 끝나는 날 제가 차를 몰고 진주에 장 총무님이라는 분하고 진주 시내로, 진주지원은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서 때문에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밤이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토끼가 한 마리 도로로 뛰어드는 걸 보고, 제가 그때 속도를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'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.' 생각하면서도 이미 토끼가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늦었구나 싶어서 토끼를 차 바퀴 그 안으로 지나치려고 그냥 그대로 완전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면서 나갔

습니다.

그런데 토끼가 그 안에서 계속 뛰었다 봐요. 순간적으로 오른쪽 바퀴에 토끼가 밟아서 물경하는 걸 제가 느끼고 순간 '아, 밟았구나. 죽었구나.' 하는 생각에 핸들에 머리를 박고는 한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. 선원에 다니면서 책 같은 걸 읽어도 '어쩔 수 없이 생물을 죽여도 주인공 네가 한 것이고 나와 내가 들어 아니니 더 좋은 몸 받아야지.'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글귀를 몰랐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너무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. 한 5분 동안.

옆에 장 처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차를 다시 돌려서 헤드라이트를 비춰 보니까 아나나 다름없어 토끼가 크지도 않아요. 조그마한 토끼인데, 토끼 잠자는 이쪽에 있고 껍데기는 저쪽에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저것도 시체도 치워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니까 그 내장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역겨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장 처사님하고 같이 옆으로 치우고는, 제 차 트렁크에 선원에서 나온 짐이 있었었습니다.

그것을 풀숲에 덮어 두고는, 무덤 대신 해 주고 왔는데 그 뒤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큰스님을 찾아뵙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,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다가 제가 순간 느낀 게 뭐냐 하면 '주인공을 굳게 믿어라.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인공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믿고 나가라.'고 큰스님께서 항상 가르치시는데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선원에 다니며 주인공 공부를 한다면서 그 순간 제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.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'좋은 옷으로 같이 입을 수도 있어.' 하는 믿음도 바로 나왔겠죠. 그러지 못했던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,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아까 그 개구리 얘기 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 토끼 생각이 갑자기 나서, 질문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뛰어 올라왔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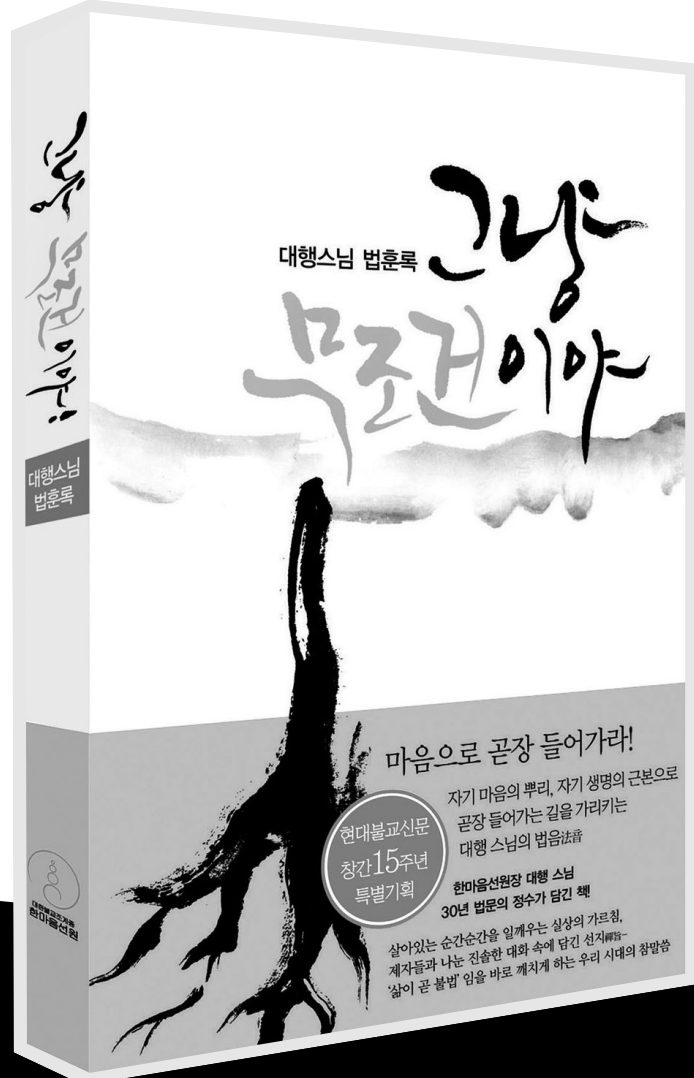
그 당시 제가 토끼 사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생물을 죽이면 안 되고 생물을 죽이면 천벌을 받



그림 · 최주현

30면으로 계속

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!



자기 마음의 뿌리,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
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
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

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-
'삶이 곧 불법'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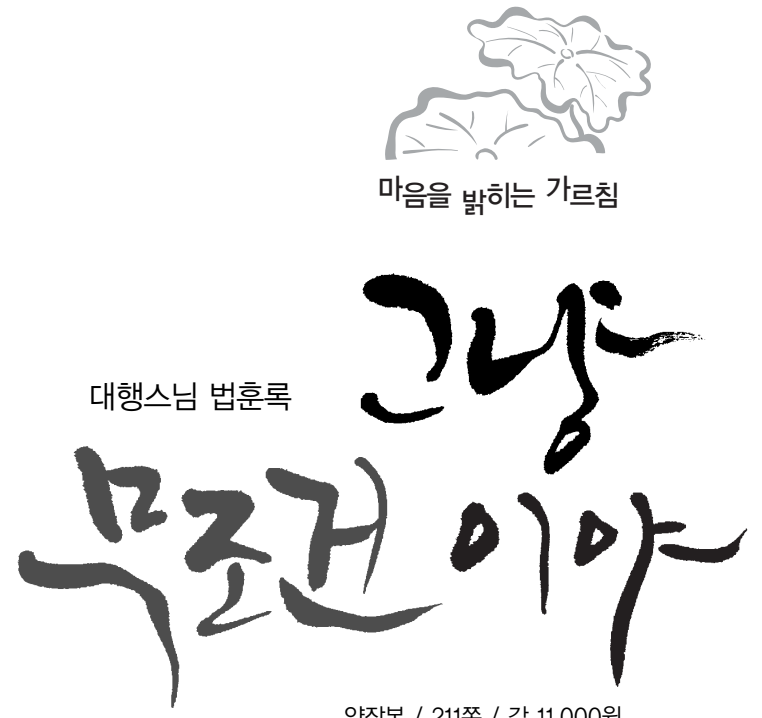
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.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.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,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.

- 본문 중에서

주문은 현불샵!
02)2004-8216

농협 053-01-269062
(주)현대불교신문사

www.hyunbulshop.com



양장본 / 211쪽 / 값 11,000원

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-13(수송동) 2층 현대불교 현불샵